

‘학력위조’에서 ‘국고지원 외압’ 확산

신정아 前 동국대 교수 학력위조 사건이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의 특별교부세 지원 외압으로 불거지는 등 불교계가 한바탕 진풍경을 겪고 있다.

△**홍익사 10억 지원 ‘외압’ 의혹**=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은 9월 20일 한 시사잡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혀 변 전 실장에게 홍익사에 대한 국가교부금 지원 요청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영배 스님은 “이 지원액으로 처음에는 도서관 설립을 추진해볼까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서관은 물론 미술관 등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따라서 경북 울주군에서 다른 분야의 필요한 곳에 일단 10억원을 쓰고 군 예산으로 상응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일부는 신정아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영배 스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아직 그 돈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홍익사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 사건’ 수사 가속도… 불교계에 총체적 부담

△**東大이사회 “비호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동국대 법인사무처는 9월 19일 ‘신정아 허위학력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동국대학교 영배 이사장 스님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홍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울주군과 협의의 거쳐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특정 목적으로 국고를 지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신씨 임용 당시 영배 스님은 상임이사에게 대한 사표를 제출해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공식적인 조사 내용이 보고되기 전에 허위학력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없었을 뿐 비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천 보광사 지원금도 ‘의혹’**=변 전 실장이 신도로 등록된 과천 보광사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월 20일 경기도와 과천시에서 따르면 보광

사 부속건물 공사비용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억9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

2004년 보광사 지장전 단청공사 비용으로 1억7200만원, 2006년 보광사 지장전 단청공사 비용 4800만원, 같은 해 소화전 설치공사 비용으로 7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에는 보광사 설립전 증축공사 비용으로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3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과천시에 위치한 또 다른 전통사찰 연주암에 대한 지원비용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시비 비율을 4:2:2로 정확히 지켜 특정사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 김기세 문화체육과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을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국·도비가 신청액수보다 적게 지급됐을 때는 지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금

액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 이사장 총사퇴 요구**=한편 동국대 교수들은 9월 16일 ‘신정아 학력위조 사태’와 관련해 재단 이사장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재형 교수(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와 동국대 119명 교수들은 “오늘의 동국대학교 사태를 바라보는 교수들의 입장과 요구”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제기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는 최근 몇개월 동안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의 발원지로 개교 이래 최악의 치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학교 당국은 지금까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세간의 불신과 의혹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배 이사장은 제28회 이사회에서 ‘가짜학위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동국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北 수해 빠른 복구 ‘응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은)는 9월 19일 인천학 제3부회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생필품 선적식을 가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일가루 85톤, 식용유 1만5120리터, 라면 1700박스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북으로 보냈다. 이날 선적된 물품은 인천항을 출발해 남포항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이 인수,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김주일 기자

출가 50주년 맞아 법어집 봉정

법륜종 원로원장 혜우 스님

(제)법륜종 원로원장인 혜우 스님 출가50주년 법회가 9월 15일 포천 길상사에서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법륜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은 축사에서 “사찰을 세우는 것은 사바세계에 극락세계 즉 성지를 세우는 것인데 스님께서는 많은 불사를 하셨다”며 “덕 높은 법력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해 달라”고 기원했다.

>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여>는 ‘불설편’ ‘법륜편’ ‘고승편’ ‘고답편’ ‘갈등해소법’ 등으로 나누어 저였으며 총 50편의 글이 실려 있다. 또 스님은 종문통용 사승 전수식을 갖고 도승 스님 등 상좌 22명에게 정법안장을 수여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총회 의장 인공, 중앙포교원장 무공, 법륜종 前 총무원장 덕산, 덕암도회회장 해각, 포천사암연합회회장 혜승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시청률보, 행사, 개교(신사건),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 임명

강화 전등사 주지에 혜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사진)이 9월 19일자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장운 스님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혜경 스님은 1989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대승사 등의 선방에서 정진했다. 또 장원사 주지와 동화사 포교국장, 총무원 재정국장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흑색선전 단호히 대처할 것”

지관 스님 종단 상황 관련 심경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이 “흑색선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관 스님은 9월 17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흑색선전에 대한 심경을 묻자 “자신의 목적과 뜻에 안 맞다고 흑색선전하고 모략하면 내 개인은 관중이지만 총무원장인 내가 망신당하면 1700만 불자들이 실망한다. 그제 제일 마음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나를 퇴진시킨다는 사람 마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볼라. 종단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순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모략을 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종단의 기강이 잡힌다. 또 이를 방조하면 응분의 처벌을 할 강한 의지가 이번엔 생겼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증원 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선거무효소송과 관련 “동국대 총장 시절 문제도 업무방해죄일 뿐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정관에도 조계종 중지를 봉대한다고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남동우 기자

중앙불교대학원

개원 법회 봉행

대한불교진흥총연합회

대한불교진흥총연합회 부설 중앙불교대학원이 개원이라 9월 15일 첫 입학식을 진행했다.

안성 영평사내 3층 규모의 최신식 시설로 설립된 대학원은 영평사 신도회장 도림행 보살의 원력으로 2년여 불사를 걸쳐 완성됐다.

대학원장은 연합회 회장인 회암 스님이 맡았다. 중앙불교대학원은 종단의 주요스님들이 교수원으로 포진돼 불교교리와 의식, 포교방법 등을 체계화해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사암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회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으로 스님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한국 불교 도제양성의 기초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조동종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 봉행

15일부터 종도교육 진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위)은 9월 18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 극락전에서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종정 지명, 승정원 원 법공, 호법원장 해천, 총무원장 대은 스님 등 종단 임원진과 수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수계법회에서 종정 지명 스님

은 법어를 통해 “구족계는 완전한 승려의 반열이며, 시작이다. 과거의 과보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계를 수지해야 한다. 귀중한 시간으로 뜻을 새기고 간직하라. 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동종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종도교육을 진행한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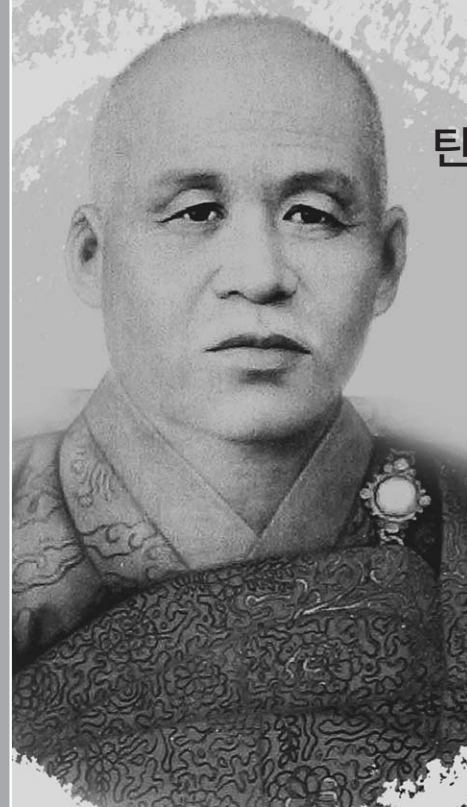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기미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이시고 이 운동의 막후 기둥이셨던 온 겨레의 육신보살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 낙성회향법회

민족중흥과 불교중흥발원 만등관등불사



죽림정사

기미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이시고, 이 운동의 막후 기둥이셨던 온 겨레의 육신보살 용성 진종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는, 민족의 지도자 용성 진종조사의 업적과 사상을 사회화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학술세미나

■ 2007년 10월 8일(음력 8월 28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제발표]

기조발제: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사상과 한국 불교의 좌표

주제발표: 용성의 사상 및 법의 계승

근대불교의 대서론과 용성 간행사의 의미

용성문도와 조계종단

용성 조사의 업적 이야기

죽림정사 낙성회향법회

■ 2007년 10월 9일(음력 8월 29일) (화) 오전 11시 ~ 12시 30분

프로그램 : 개회식, 경과보고, 불교계 관계부주요인사 축사, 법어, 축하공연

용성 음악제

■ 2007년 10월 9일(음력 8월 29일) (화) 낮 1시 ~ 2시

프로그램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

장소 : 죽림정사

☞ 행사에 동참하시는 분께 차량을 지원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답장 : 정도연 011-9496-8496 전화 02-587-8994 팩스 02-586-1950

주최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장안산하 죽림정사 | **주관** | 재단법인 정도회 | **후원** | 사단법인 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 용성 진종조사 유훈실현위원회 · 전라북도 장수군

협찬 | 국가보훈처,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법보신문, 불교신문, 불교이문 | **문의** | 전라북도 장수군 범암면 죽림리 죽림정사 (063-353-0108 / 전승 063-353-8500) 서울사무국 (02-587-8994 / 전승 02-586-1950)